

고등학교 여행 지리 과목에서의 ‘여행의 의미’

오정준*

‘The Meaning of Travel’ in Travel Geography Subjects

Jeongjoon Oh*

요약 :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여행 지리 교과서에 재현된 대안 여행과 현실에서 나타난 대안 여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에 나타난 차이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안 여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여행 지리 과목의 ‘여행의 의미’를 재음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2종의 교과서에 서술된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의 해결책이자, 초기 대안 여행의 원형적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대안 여행은 양적 팽창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원형적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중 관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대안 여행을 ‘좋은’ 여행으로 상정하고, 대중 관광을 ‘나쁜’ 여행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인식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통해 3가지 핵심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여행 지리의 ‘여행의 의미’를 재고하였다. 먼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여행과 관광에 관한 이분법적 구분을 기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이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를 고려함으로써 학생이 현재 실천하는 일상 경험으로서의 여행 방식을 여행 지리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 지리 과목에서 표방하는 ‘여행의 의미’를 대안 여행의 초기 모습에 국한하지 말고, 대중 관광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고등학교 여행 지리 과목, 교과서, 학생의 일상 경험, 대안 여행, 여행의 의미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tract the differences between alternative travel depicted in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textbooks and alternative travel in reality, and to re-examine ‘the meaning of travel’ in travel geography subjects that currently focus on alternative travel based on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lternative travel described in the two textbooks is a solution to mass tourism and is reproduced as the original form of early alternative travel. However, alternative travel in reality did not match the original form in terms of quantitative expansion and influence on the local community, and rather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mass tourism. The reason for the discrepancy between textbooks and reality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internalizing the dichotomous perception that alternative travel is ‘good’ travel and mass tourism is ‘bad’ travel.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eaning of travel’ in travel geography was reconsidered by suggesting three key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ject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travel and tourism through a change in percep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ravel as student’s everyday life experience in textbooks by considering ‘the meaning of travel’ that students think and practice. Lastly, ‘the meaning of travel’ in travel geograph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early stages of alternative travel, but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mass tourism.

Key Words :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subjects, Textbooks, Student’s everyday life experience, Alternative travel, Meaning of travel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jeongjoony@naver.com)

I. 서론

2015 지리 교육과정에 여행 지리 과목이 등장했다. 그리고 차기 교육과정에도 존속되었다. 과목의 유지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현장의 오랜 바램이었던 여행 지리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했기 때문이다. 각계의 우려를 불식했고, 기대치를 넘어선 결과까지 도출했다. 실로 오랜만에 지리교육 현장에서 들려온 희소식이었다. 낮은 선택률 등의 원인으로 인해 7차 교육과정의 경제 지리가 존속되지 못한 점과 비교한다면, 여행 지리의 성공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공이 학문적 도움 없이 이루어진 데 있다. 2015 여행 지리 교육과정 개발진은 선행연구 없이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했고, 교과서 저자는 제한된 여행 지리학 문헌에 의지하여 집필해야 했다(강창숙, 2016; 김기남, 2021; 손민석·이진희, 2022). 학교 현장은 더욱 처참했다. 대부분의 지리 교사는 인터넷을 벗삼아 홀로이 분투했고, 단지 일부만이 교사 연구모임 등의 제한된 경로를 통해 도움받을 뿐이었다(김지수, 2020). 여행(travel)의 어원이 고통(travail)이듯이, 여행 지리의 개발 및 초기 시행 과정은 흡사 여행의 어원을 재현한 것 같았다.

다행히도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22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여행 지리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¹⁾ 비록 소수이지만 관련 서적도 출판되었다. 또한 지리 교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업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각자의 수업 방법과 체험을 공유하면서 ‘좋은’ 여행 지리 수업을 도모하고 있다. 여행 지리의 초기 시행 과정과 비교한다면 상전벽해에 가까운 발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여행 지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적 논의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지만, ‘여행 지리는 무엇인가?’에 관련된 학문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²⁾ 실제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현장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논쟁(혹은 질문)은 ‘여행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심승희·김현주, 2016), 이는 곧 여행 지리의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에 해당한다. 다음은 지리 교사들이 연구진에게 제기한 대표적 질문 중 일부이다.

(질문 1) “여행은 관광과 어떻게 다른가?”

(질문 2) “여행과 관광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3) “관광이라는 용어보다 여행이라는 용어가 친숙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대안 여행 혹은 지속 가능한 여행이라고 언급하는 것보다는 대안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여행과 관광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³⁾

논쟁의 초점은 여행 개념에 관한 의문에 있다. 즉, 여행과 관광이 용어로서 구분되어 있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대안 여행 및 대중 관광 등과 같이 각각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적합한지에 관한 의문이다. 그래서 지리 교사들은 불분명한 여행 개념의 이해는 차제에 두더라도 과목 내에서만큼은 여행과 관광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여행 지리에서 표방하는 ‘여행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연구진은 ‘여행의 의미’를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⁴⁾

‘여행’의 의미는 현대에 들어와 출현한 ‘여가 활동으로서의 관광’에 한정되지 않는다...(중략)...여행 지리 과목에서 의미하는 여행은...(중략)...지적 활동이며...(중략)...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 즐기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중략)...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의 형성, 대안적 세계에 대한 모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래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진로 등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여행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4단원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이다. 이 단원에서는...(중략)...빈곤·분쟁·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떠나는 봉사 여행을 통해 인류가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행복하고 공정한 공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한다.⁵⁾

연구진은 여행 지리 과목이 표방하는 ‘여행의 의미’가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서의 관광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와 동시에 여행 지리가 의미하는 여행은 교육적, 윤리적 장점이 내포된 대안 여행임을 암묵적으로 제시했고, 그러한 ‘여행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봉사 여행을 선정했다. ‘여행의 의미’가 대안 여행으로 선택됨으로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많은 부분이 대안 여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봉사 여행과 같은 대안 여행의 하위 유

형으로 구성되었다.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을 준거로 집필된 교과서 역시 대안 여행이 폭넓게 서술되어 있다.

대안 여행(alternative tourism)은 대중 관광의 '대안'으로 부상한 여행의 한 유형이다(Eadington and Smith, 1994). 20세기 중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태동한 대안 여행은 윤리적, 교육적, 친환경적, 자원봉사 행동을 방문 지역에서 추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존재했다. 대량 및 표준화로 특징되는 대중 관광과 달리 소규모(개인) 및 유연화의 특징을 내포했고, 여행의 주체가 지식과 안목으로 무장한 신중관계급으로서(Bourdieu, 1984), 전문화(professionalisation)와 지성화(intellectualisation)를 통해 대중 관광과 다른 차별적 여행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이다(Munt, 1994). 따라서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인식되었고, 초기 양상 역시 긍정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실에서의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의 '대안'이 되기에 부족했다. 대안 여행이 지향하는 목표와 대안 여행자가 실천하는 행위가 긍정적 측면을 내포했지만, 대안 여행 역시 서구 자본주의 확장이라는 태생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했고, 자본으로 인한 종속적 관계는 대중 관광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루어진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한편 최근의 대안 여행은 그것이 시작된 20세기 중반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의 대안 여행은 서구권 중산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비서구권 국가에서도 참여하는 보편적 양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대안 여행이 제도화 및 대중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많은 이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소수로 특화되었던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고, 대중화된 모습으로 변모되었다는 주장이다(Reichel *et al.*, 2007, Vainikka,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지에서 Clarke(1996)는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 모두 교통 및 예약시스템과 같은 여행의 하부구조를 공유하기에 양자를 분리된 실체로 볼 수 없다'고 제안했고, Vainikka(2013)는 '생태 여행 등의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의 변형일 뿐, 대중 관광의 대척점이 아니며, 대안 여행의 변화된 모습을 고려할 때, 지구상의 모

든 대안 여행자를 대중 관광객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Vainikka, 2013).

대안 여행의 모습이 양적 측면에서 대중 관광과 차이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그리고 대안 여행 역시 대중 관광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영향이 제기된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안 여행을 대중 관광의 대척점이자, 해결책으로 사유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안 여행의 변화를 추적하고, 현실의 대안 여행을 관찰 및 분석함으로써 여행 지리 과목이 표방하는 '여행의 의미'를 재음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서구 사회가 주도한 대안 여행의 초기 원형적 모습을 '여행의 의미'로 두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여행의 방식을 통해 여행 지리의 '여행의 의미'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대안 여행의 개념적 정의와 현상과의 불일치를 가정하면서 두 가지의 문점을 가져본다. 첫째는 대안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 여행의 개인이 대중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의 집단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대안 여행이 여행자과 여행지 주민에게 모두 행복한 여행인가?'이다. 앞선 두 개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재현된 대안 여행과 현실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안 여행을 비교 및 분석했다. 더 나아가 대안 여행의 구체적 현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봉사 여행을 선정했고, 다시 두 가지 의문점을 상정했다. 첫째는 '봉사 여행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인가?'이고, 두 번째는 '봉사 여행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재현된 봉사 여행과 현실에서 작동하는 봉사 여행을 비교 및 분석했다. 교과서에 재현된 대안 여행은 2015 교육과정에서 검·인정된 2종의 여행 지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분석했고, 현실에서의 대안 여행은 비판적 관점에 입각한 해외의 지리학 및 사회과학 문헌과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행 지리 교과서가 표방해야 할 '여행의 의미'를 3가지 측면에서 제안했다. 이는 각각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에 관한 인식의 전환', '학생이 생각하는 여행 지리의 의미', '여행 지리가 표방하는 여행의 새로운 의미'이다.

II. 교과서의 대안 여행이 개념의 원형적 모습으로 재현되는 원인

교과서에서 재현된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정의되고 있다.⁶⁾ 이를테면 ‘대안 여행은 기존 여행(대중 관광) 형태를 대신하는 새로운 여행’, ‘대량 이동(대중 관광)과 소규모 여행(대안 여행)’, ‘많은 수의 여행자가 획일적 일정에 맞추어 이동하는 대량 여행(대중 관광)과 개별적, 소규모 여행 형태(대안 여행)’,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여행(대중 관광)과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행(대안 여행)’ 등과 같은 진술이 대표적 예이고, 이는 2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박종관 등, 2018: 조성호 등, 2022). 비교를 통한 정의에서는 대안 여행의 단점과 대중 관광의 장점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대안 여행의 장점과 대중 관광의 단점만 대비되고 있다. 즉, 대안 여행은 ‘좋은’ 여행으로, 대중 관광은 ‘나쁜’ 여행으로 구분될 뿐이다. 교과서에서 재현된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의 정의가 대척점으로 비교되면서 진술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한 탈근대적 연구이고, 두 번째는 관광 연구의 독특한 방향성이다.

탈근대적 관점을 내면화한 연구자들은 대안 여행의 등장에 주목했다. 이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대안 여행이 근대적 특성을 내포하는 대중 관광과 차별적이었고,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각각 포스트포디즘, 포스트모더니즘, 환경주의로 대표되는 탈근대적 양상을 내포했기 때문이다(Vainikka, 2013). 연구자들은 ‘경성(hard)’과 ‘연성(soft)’, ‘신(new)’과 ‘구(old)’ 등의 표현을 통해,⁷⁾ 대중 관광과 대안 여행을 개발 방식, 생산 및 소비 방식, 방문 장소의 특성, 여행자 특성 등의 항목을 가지고 대비시켰고, 이를 종합하여 양자 간의 비교 도식을 완성했다(오정준, 2023). 탈근대적 관점을 내면화한 연구가 근대적 방법론인 이분법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역설이 존재하지만,⁸⁾ 이러한 구분 방식은 적어도 관광 연구에서 통용되었고 지리 교육계를 비롯한 외부에 폭넓게 전파되었다(표 1).

초기 도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학자는 Krippendorf(1982)이다.⁹⁾ 그의 비교 도식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자주 인용됨으로써 여행과 관광(혹은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이 각각 ‘선과악’, 혹은 ‘좋은과 나쁜’의 이분법적 구조로 양분되는데 일조했다(Lane, 1989, Clarke, 1997에서 재인용). 이후

Poon(1993)과 Mowforth and Munt(1998)는 Krippendorf(1982)의 구분을 내면화하여 관광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Mowforth and Munt(1998)는 포스트포드주의 방식과 관련한 경제적 변화가 개발도상국의 대안 여행에서 표출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신중단계급의 포스트모던 문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¹⁰⁾ Krippendorf(1982), Poon(1993), Mowforth and Munt(1998) 등의 탈근대적 관점을 내면화한 학자들이 제시한 이분법적 도식으로 말미암아 관광은 대중 관광 및 근대적 관광과 등식으로, 여행은 대안 여행 및 탈근대적 관광과 유사한 것으로 고려되었다(오정준, 2023).

탈근대적 연구의 이분법적 구분은 관광 연구의 방향성(혹은 전통)과 연결됨으로써 대안 여행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관광 연구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대 범주를 활용한 연구 전통이고, 두 번째는 학문적 기여보다 사회적 기여에 치중하는 연구 전통이다. 전자는 관광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서, 관광의 반대편에 특정 개념을 제시하고, 양자의 비교를 통해 관광을 정의하는 방식이다(Stors *et al.*, 2019). 양자 간의 차이가 클수록, 양자 간의 경계가 분명할수록 관광에 관한 설명이 분명해진다고 고려하기에 관광 연구는 이러한 전통을 선호한다. 예를 들자면, 관광의 반대편에 일상을 세워놓고, 양자 간의 비교를 통해 관광을 정의하는 식이다(오정준, 2021). 여행에 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관광과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관광 문헌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데, 다음은 여행에 관한 대표적 정의 중 하나이다.

‘여행은 관광의 상위 개념으로서, 출발지로 되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통수단에 의존한 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로, 관광과 달리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와 관계없이 행해진다.’ (한국관광학회, 2009)¹¹⁾

위 정의는 관광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중략)...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라는 전술과 ‘목적과 관계없이 행해진다’라는 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서술로서, 후술이 전술을 부정하는 상충적 진술이다. ‘출발지로 되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며’라는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여행에 관한 정확한 이

표 1. 대중 관광과 대안 여행의 이분법적 구분

구분	대중 관광 (관광 또는 근대적 관광)	대안 여행 (여행 또는 탈근대적 관광)
	경성 관광(hard tourism)의 관광객	연성 관광(soft tourism)의 여행자
Krippendorff	집단 광경(sight) 추구 현지 지식 없음 현지어 못함 편안함, 수동적 고정된 여정 소란스러움 스냅 사진(카메라), 포스트 카드 기념품(구매) 단기간	개인 경험 추구 현지 지식 있음(사전 학습) 현지어 습득 모험적, 능동적 즉흥적 여정 조용함 사진(전문 카메라), 그림(그리기) 추억(쌓기) 장기간
	구관광객(old tourist)	신관광객(new tourist)
Poon	태양에 대한 추구 대중을 따름 오늘은 여기에, 내일은 떠남 (현지에 대한) 우월 의식 명소 선호 (수동적) 반응 호텔에서의 식사 동질적	새로움에 대한 추구 (개인으로) 책임지는 보고, 즐기나 파괴하지 않음 (현지에 대한) 이해 스포츠와 자연을 선호 (능동적) 모험 현지에서의 식사 혼종적
	오래된(old) 관광	새로운(new) 관광
Mowforth and Munt	포드주의 생산(fordist) 대중 패키지 3S 또는 4S(sun, sand, sea, or sex) 가짜(unreal)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책임 없는 근대적(modern)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post-fordist) 개인 비패키지, 유연적 3T(travelling, trekking, trucking) 진짜(real)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탈근대적(post-modern)

출처 : Krippendorff(1982); Poon(1993); Mowforth and Munt(1998)의 내용을 재구성함.

해를 방해하고 있다. 위 정의가 모호함의 극치를 이룬 원인은 여행이 관광의 상위 개념이라는 전제만 채, 관광과 비교를 통해 여행의 특징을 추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정의는 관광과의 차별성을 도출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여행 개념 그 자체에 관한 의문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여행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은 어렵고, 난해한 일이다. 박경환(2018)이 밝혔듯이 여행을 특정 범주의 사회·공간적 실천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많은 문헌에서는 여행과 관광이 엄밀한 구분 없이 교차적으로 사용되며,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려면 무수한 여행 현상 사례를 통해 일반화된 특성을 추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개념은 대상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한 보편적 관념으로서, 외부와의 비교가 아닌 개념 내부의 작동방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Vainikka, 2013). 그러나 반대 범주 활용 전통을 내면화한 학자들은 관광과의 비교를 통해 여행을 너무나 쉽고, 간단하며,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여행 개념은 고정된 방식으로 무한 반복됨으로써 독자들의 의문을 유발한다. 앞서 서론에서 현장 교사들이 제기한 의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관광 연구의 두 번째 전통은 관광 연구가 학문적 기여보다 사회적 기여에 치중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 연

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경험적 사례연구에 진심이다. 그 이유는 산업 혹은 정책 주도의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Franklin and Crang, 2001), 현실에서 바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김사현, 2008).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유형화를 통한 수요 파악이고, 이를 기반으로 세분화한 관광객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오정준, 2023). 이러한 연구 방향성은 개념과 관련된 논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여행의 본질(혹은 의미)을 규명해야 하는 학문적 요구를 반감시킨다. 그 결과 관광 연구에서의 개념의 정의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로 (재)정의하기보다는 인접 학문의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를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대안 여행 연구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Krippendorff(1982)와 Poon(1993)이 제시한 초기 개념은 관광학에 기반한 대안 여행 연구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다(오정준, 2023). 물론 기존 정의(혹은 개념)에 관한 반박도 일부 존재하지만,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거나(Mowforth and Munt, 2016), 기존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 연구는 신랄한 비판과 마주하고 있지만,¹²⁾ 이러한 연구 전통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탈근대적 연구의 이분법적 구분과 관광 연구의 전통은 대안 여행에 관한 인식에 심각한 파장을 촉발했다. 초기 대안 여행 개념을 ‘복사하여 붙이는’ 행위가 고정 관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관광 연구를 넘어 인접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에게도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량의 산출물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한 치의 오차 없이 대안 여행의 원형적 개념을 기술하고 있고, 비교를 통해서만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선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량의 산출물을 접한 대다수는 대안 여행을 ‘좋은’으로, 대중 관광을 ‘나쁜’으로 인식할 뿐이고, 각각을 비교해서 제시한 정의를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¹³⁾ 여행 지리 교과서에서 대안 여행의 정의

가 대중 관광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진술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선 원인으로 인해 교과서의 논리 전개는 2중 모두 이분법적으로 진술된다. 먼저, 대중 관광의 단점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대안 여행의 장점과 그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 걸쳐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대안 여행으로 인해 ‘여행자와 여행자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에 두 가지 의문점을 상정한다. 하나는 ‘대안 여행의 개인이 대중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자와 여행자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을 만들 수 있는가?’이다. 다음 장에서는 교과서에서 재현된 대안 여행과 현실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안 여행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

III. 교과서에서 재현된 대안 여행과 현실에서의 대안 여행

1. ‘대안 여행은 대량과 관련 없는가?’

교과서에서 재현된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행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행자의 수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즉, 대중 관광으로 파생된 문제의 원인이 대량의 관광객에 있다는 것이고, 대안 여행은 개인이 소수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중 관광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표 2). 실제로 대안 여행의 초기 양상은 교과서의 정의와 다르지 않았다.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이 양적으로 팽창할 당시에 탄생했는데,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중반이었다. 대안 여행자는 서구의 젊고, 건강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서, Phillips(2009)의 용어로는 방랑적(peripatetic)

표 2 대안 여행의 양적 특성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

A 교과서	B 교과서
- 대안 여행은 기존의 여행 형태를 대신하는 새로운 여행으로, 여행자의 대량 이동과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행으로 정의된다. -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주로 소규모로 여행한다.	- 많은 수의 여행자가 획일적인 일정에 맞추어 이동하는 대량 여행은…(중략)…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대안 여행은 대량 이동과 활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중략)…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행을 말한다. - 개별적·소규모 여행 형태를 지향한다.

중산층에 해당한다(Phillips, 2009; 박경환, 2018에서 재인용). 이들은 여행사의 도움 없이 오지와 험지를 방문했다.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주민이 제공하는 숙식에 의존했으며, 장기간 체류하면서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낭만주의 문학가인 바이런(Byron)이 그랜드 투어(grand tour) 중에 방문 지역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여행의 신'으로 추앙받았듯이(설혜심, 2013), 초기 대안 여행자는 마치 내부의 구성원처럼 지역에 녹아들 수 있었다. 비록 다른 계급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계급적 차별 요소가 존재했지만, 초기 대안 여행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시선(gaze)의 형성으로 발생했다.¹⁴⁾ 위험을 감수하고 원거리를 질주하는 여행자는 론리플래닛(Lonely Planet)과 같은 대안적 여행 매체에 재현됨으로써 대안 여행을 추종 및 모방하는 잠재적 여행자에게 방문 동기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론리플래닛 등의 매체는 대안 여행자가 방문해야 할 장소와 여행 방식까지 알려주었는데, 이는 대중 관광객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베데커(Baedeker)의 역할과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한지은, 2019). 물론 베데커와 같은 여행안내서는 대중 관광지에 관한 소개와 함께 관광(sightseeing)에 기반한 시각적 경험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고, 론리플래닛은 대안 여행지의 소개는 물론이고 실전 등을 통한 다감각적 경험 방식에 방점을 두었기에 양자 간에 차이점은 분명하게 존재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양적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베데커와 론리플래닛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 블로그와 이를 책의 형태로 출판한 여행기(blook)에서도 여행자의 모습이 재현되었다. 이는 대안적 여행기의 재현에 비해 주관적 요소가 강했고, 관광객에 관한 거친 설명이 수반되었다. 여행 작가들은 특정 단어와 구문을 활용하여 자신을 관광객이 아닌 여행자로서 규정했고, 관광객-여행자의 이분법과 관련된 담론적 긴장을 조성했다(Azariah, 2019). 이는 전적으로 자체 이미지 설정에 따른 자기 인증에 불과하지만(오정준, 2023), 특정 독자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여행에 대한 욕망의 실현과 의도적인 가치 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박경환, 2018)'로서, 여행을 문화적 자본으로서의 위치재(positional goods)로서 사유하는 중산층이자, 대중 관광객과 거리 두고자 하는 여행자였다. 따라서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생산된 의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여행기(박경환, 2018)'는 대안 여행에 관한 낭만주의적 시각을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장소에 관한 시선을 빠르게 구축했고, 궁극적으로 대안 여행자의 양적 증가를 초래했다.

비슷한 시기에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 등의 여행 기관과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와 같은 신문 매체는 윤리적이고, 환경적 요소를 내포한 대안 여행을 홍보 및 장려했다(Mowforth and Munt, 2016). 여행기가 기폭제였다면, 기관의 장려는 촉매제로 작용함으로써 여행자의 양적 증가를 더욱 부추겼다. 한편 대안 여행의 등장을 포착한 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소규모의 독립적 여행사는 모험과 탐험을 추구하는 소비자 취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¹⁵⁾ 트레킹(trekking), 트럭 여행(trucking), 버드 워칭 투어(bird-watching)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새로운 상품의 출시 및 제공은 즉각적 반응의 대표적 예이다(Lash and Urry, 1994). 이러한 대안적 여행업체의 등장은 대안 여행의 모습을 양적, 질적으로 변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장소를 여행 회로(travel circuits)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Mowforth and Munt, 2016).

일반적으로 대안 여행자는 '발길 닿지 않은 장소(off-the-beaten-track)'를 선호한다.¹⁶⁾ 이러한 장소에서 모험과 탐험을 경험할 수 있고, 원시적인 진정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시선이 형성되고, 이를 재빠르게 포착하는 독립 여행사의 상품 제공이 이어지게 되면 이러한 장소는 후속하는 다수의 여행자에게 의해 점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소수만이 찾던 장소는 다수가 방문하는 '익숙한 장소(the-beaten-track)'로 변화되고, 일단의 여행자는 또 다른 발길 닿지 않은 장소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전형적으로 목격된다.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불교, 애니미즘의 독특한 혼합을 고수한 발리 문화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서구 여행자들을 매료시켰다. 20세기 중반 이후, 발리는 관광을 개발의 기조로 내세우며 관광 시설 및 하부구조를 건설했는데, 이는 더 많은 대안 여행자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자의 양적 성장은 발리 내에서 여행자 간의 공간적 차별화를 유발했다. B 교과서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¹⁷⁾ 발리의 가장 전형적인 여행지인 쿠타(Kuta)는 쓰레기와 오염으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현재는 대안 여행자가 피해야 할 장소

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 여행자는 쿠타 대신 발리 내의 '발길 닿지 않은 장소'로 방문지를 변경한다. 어떤 여행자는 발리의 한적한 내륙과 해변으로 향하고, 또 다른 여행자는 관광 개발의 산물인 리조트를 숙소로 활용하면서, 고유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발리 내의 '발길 닿지 않은 장소'를 당일치기로 방문한다. 그 결과 발리의 모든 장소는 대안 여행자의 흔적으로 채워짐으로써 대안 여행자는 발리의 원시적 장소를 하나씩 파괴하는 행위자가 되고 있다(Mowforth and Munt, 2016).

일반적으로 원시적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에 소량의 방문이더라도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물론 방문객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친환경적 태도로 무장했다라도, 그들을 위한 기본적 시설조차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장소는 대중 관광지에 비해 더욱 큰 환경적 손상을 받을 수 있다(오정준, 2004a).¹⁸⁾ 더 나아가 연속적 점거로 인한 대안 여행자의 양적 증가는 환경에 더 큰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안 여행자의 방문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발길 닿지 않은 장소'는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그러한 장소가 대안 여행자의 '익숙한 경로'로 변화되면, 건잡을 수 없는 피해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제2의 쿠타(Kuta)가 될 것이 분명하다.

대안 여행으로 인해 세계의 모든 지역이 여행 회로의 일부가 되는 상황에서 배낭, 개별, 소수라는 칭호는 이제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배낭, 개별, 소수의 총합은 대량에 가깝고, 그들의 연속적 점거는 대중 관광의 영향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안 여행은 더 이상 대중 관광의 대안이 될 수 없고, 대중 관광과의 차이

가 별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한지은, 2019). Mowforth and Munt(2016)가 표현했듯이 배낭, 개별, 소수 등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대안 여행자는 이제 대량의 '배낭여행자 군대(armies of backpackers)'가 되었기 때문이다.

2. '대안 여행은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에게 모두 행복한 여행인가?'

여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2종의 교과서 서술 역시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이 대비되고 있다. A 교과서의 경우 대중 관광은 경제적 이익이 주민으로 환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지만, 대안 여행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기에 경제적 이익이 내부에 머물고, 여행자가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대중 관광과 달리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기술되고 있다. B 교과서의 경우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대중 관광과 달리 대안 여행은 지역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론 역시 2종의 교과서 모두 유사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대안 여행의 영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안 여행은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에게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안 여행은 '세상을 바꾸는 여행'이 된다고 마무리한다(표 3).¹⁹⁾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안 여행 역시 부정적 영향을 지역에 줄 수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대중 관광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는 지배(subjugation), 예속(servility), 종속(subservience)의 3S를 통해 대중 관광을 설명하는데(Mowforth and

표 3.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

A 교과서	B 교과서
- 경제적 이익 위주의 여행 정책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환경에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중략)...여행자의 소비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 대안 여행은...(중략)...고급 호텔이 아닌 현지 주민의 집에 머무르며, 훼손된 문화유산 복원에 동참하기도 한다...(중략)...대안 여행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하는 여행이며,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다. - 여행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행이라면 모두 대안 여행이 될 수 있다.	- 대량 여행은 여행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전통문화 훼손 등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중략)...대량 여행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여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대안 여행은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이다. 여행자들은 여행지 주민의 집에 머무르며, 여행지에서 생산된 작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여행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 여행자와 지역주민이 다 같이 행복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은 모두 대안 여행이 될 수 있다.

Munt, 2016), 이는 자본주의 확장에 따른 관광 목적지의 변화 양상에 관한 은유로서, 주류 연구가 대중 관광을 목적지 확립성에 비추어 태양(sun), 바다(sea), 모래(sand)의 3S로 상징하는 것의 반작용이자, 또 다른 비판적 은유이다.²⁰⁾

비판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지칭하는 3S는 대중 관광의 국제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확장은 개도국 목적지의 문화, 환경, 경관, 사람을 자본의 구미에 맞게 상품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목적지의 모든 대상은 관광객의 소비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되고, 원래의 고유한 모습, 즉 진정성이 상실된다.²¹⁾ 또한 관광으로 인해 창출된 수익은 지역에 남겨지지 않고 투자 주체로 회귀하기에 관광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기보다는 선진국 자본에 의해 지배, 예속, 종속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Mowforth and Munt, 2016).

따라서 비판적 관점은 지역에 미치는 대중 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대중 관광이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채, 불균등한 발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진술 역시 비판적 관점과 공명한다. 양자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과서는 이러한 과정이 대중 관광에 한정되고, 대안 여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비판적 관점은 대안 여행 역시 여행자를 위해 상품화가 진행되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선진국 자본의 지배, 예속, 종속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Mowforth and Munt, 2016). 결국 비판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안 여행은 교과서에서 서술된 '세상을 바꾸는 여행'이라기보다는 대중 관광과 마찬가지로 서구 자본주의 확장이라는 굴레 속에서 '세상을 유지하는 여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 자본의 지배, 예속, 종속의 과정은 개도국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환경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대안 여행은 환경을 고려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음속의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대안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역 환경에 관한 보전 및 유지 활동, 즉 무분별한 개발에 관한 방지 활동이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 보전, 유지하는 활동이 선진국의 가치와 실

천에 기반하는지, 아니면 목적지 지역사회에 필요에 기반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환경 윤리를 가난한 목적지 국가에 강요함으로써, 그곳 현실과의 불일치한 측면의 존재 여부 확인이다. 이를 생태 여행(혹은 생태 관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태 여행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에서 행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안 여행자의 특성 중의 하나가 '발길 닿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중 관광객의 활동 범위가 관광 단지와 리조트 등으로 구성된 관광객 엔클레이브(tourist enclave), 혹은 여행 중심지(RBD: recreation business district)가 입지하는 도시 공간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대안적 생태 여행자는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을 주로 방문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문지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농촌 지역의 생태 환경은 개발도상국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환경관으로 볼 때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원이지만, 지역주민은 그것을 토대로 삶을 영위해 나간다. 그래서 자원의 활용은 자원 방문자인 여행자가 아니라, 자원 사용자인 지역주민에게 있어야 마땅해야 하지만 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지역주민에게 없다. 오히려 서구적 환경 이념을 개발도상국의 프로그램에 부과하는 초국가적 기관과 그들의 권력을 내면화한 지역의 엘리트에게 있다(Mowforth and Munt, 2016). 이들에 더하여 생태, 녹색, 지속 가능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독립적 여행사와 이를 소비하는 대안적 여행자 역시 통제권을 갖는다. 여행 그 자체로 환경 운동이 되는 방식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은 환경 파괴의 주체로 낙인찍힌다(Mowforth and Munt, 2016). 즉, 세계 시민성 덕목이 부족한 미개인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생태 자원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진국의 가치관이다. 그들만의 윤리관과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여행자의 고결한, 숭고한 목적을 위한 지역 환경의 보전 활동은 마치 식민주의 시대의 식민지 자원이 주민의 생계가 아닌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녹색 약탈(green grabbing)'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콜롬비아의 한 국립공원에서는 생태 여행을 위한 토지 강탈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세계의 여러 가난한 지역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Ojeda, 2011, Mowforth and Munt,

2016에서 재인용).

대안 여행이 추구하는 환경 윤리, 혹은 전 지구적 환경 이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표방한 지속 가능한 관광은 가난한 지역사회에 권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보존 윤리의 숭고한 축진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사고가 일치해야 하는 생태 구조적 조정 (eco-structural adjustment)에 불과하다. 결국 선진국의 환경 윤리를 개도국에 강요 및 실천하는 이들은 더 이상 대안 여행자가 아니다. 그들은 환경 선교사 군대이자, 환경 십자군인 셈이다(Mowforth and Munt, 2016).

2) 문화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대안 여행은 현지에 체류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안 여행자가 '지역의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문화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많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안 여행은 신중단계급(new middle class)이 주도한다(Bourdieu, 1984; Urry, 1990; Lash and Urry, 1994). 이들은 경제적 자본은 풍족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화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 분파로서,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본에는 못 미치지만, 문화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 계층이 지닌 문화적 자본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애매한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취향을 통해 다른 계급과 '구별 짓기'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여행은 구별 짓기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다른 계급 분파와의 차별성을 이룩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신중단계급에게 있어서 여행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즉 문화적 자본이 표출되는 문화적 장신구인 셈이다(오정준, 2023).

신중단계급이 다른 계급 분파와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채택한 공간적 구별 전략이 오지와 험지 방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현지의 진정한 자연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발길 닿지 않는 장소'의 방문이다. 먼 거리가 구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위험으로 가득 찬 개발도상국의 오지를 도보, 혹은 트럭을 타고 방문한다. 먼 거리는 하나의 위치제로 작용했고, 상징적 지위를 보여주는 재화가 되었으며(조광익, 2006), 휴가를 보내는 가장 고결한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두고 브루디외는 물신 숭배적 게임(fetishistic cultural game)이라고 주장했다(Bourdieu, 1984).

원래 물신주의(fetishism)는 대중 관광을 사회·문화적으로 비판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 관광은 3S(sun, sand, sea)로 상징된다. 3S의 전형적 장소는 해변으로서, 관광 개발 시, 인위적 경관 조성을 통해 낙원의 이미지가 구현된다. 세계의 그 어떤 유명 해변 리조트에 가더라도 야자수, 데크(deck), 차양 천막, 고운 모래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기원은 각각 남태평양의 외딴섬, 지중해 유람선의 갑판, 영국 왕궁의 파빌리온, 태평양의 산호섬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구성품이 조합됨으로써 '파라다이스 해변'이라는 인위적 관광 경관이 조성된다(Löfgren, 1999).

그런데 낙원의 이미지로 포장된 해변은 현지의 관광 노동자를 감추고, 숨기는 역할을 한다. '마치 과일을 따는 일꾼들이 처한 상황과 이 숨겨진 일꾼들이 어떤 희망으로 사는지 고려하지 않고, 과일이라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듯이'(Cook, 1993, Mowforth and Munt, 2016에서 재인용), 해변이라는 상품은 가난한 관광 노동자를 감추는 역할로 작용한다. 대중 관광을 비판하고, 대안 여행이 해결책이라고 간주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신 숭배적 특성을 폭로하고, 실제 장소에서 실제 사람과 실제 문화를 만난다는 것이 대안 여행이 핵심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 여행도 별반 다르지 않다. 먼 거리를 이동하여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찾으려는 신중단계급의 구별 전략은 비서구의 세계를 이국적 장소로 타자화하면서(이재열 등, 2022), 가난한 여행 노동자들을 시야에서 지워버린다. 아마도 아프리카 트럭 여행(trucking)은 그것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트럭 여행은 20여 명의 여행자가 현지의 가이드, 요리사, 드라이버와 함께 아프리카를 트럭으로 횡단하는 여행으로서, 대안 여행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3T(travelling, trekking, trucking) 중 하나이다. Mowforth and Munt (2016)는 3T를 대안 여행의 전형이라고 제시하면서 대중 관광의 3S와 비교하였고(표 1), 론리플래닛 시리즈는 현지 주민과의 진실하고 실제적인 접촉은 배낭여행과 트럭 여행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Mowforth and Munt, 2016). 트럭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홍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행은 '모험', '진짜', '태초의 세계', '가려진 세계' 등 대안적 여행의 전형적인 특성을 내포한다

표 4. 트럭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홍보 문구

- '정신적으로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의 필수품.' (Truck Africa)
- '진짜(real) 여행의 전율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리조트와 해변을 선호하는 대중들에 의해 가려진 세계를 방문' (Dragoman)
- '진짜(real) 전문 여행사' '장엄하고 경이로운 태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아프리카 리얼 캠핑.' (Red Africa)

* 첫 번째와 두 번째 홍보 문구는 Mowforth and Munt(2016)의 연구를 재구성했고, 세 번째 홍보 문구는 Red Africa 홈페이지(<https://redafrica.co.kr/>)를 참고한 것임.



그림 1. 한국 여행사가 제공하는 아프리카 트럭 여행에서의 차량과 현지 주민의 케이터링

출처 : Red Africa, <https://redafrica.co.kr/>.

(표 4).

트럭 여행자는 가정에서 만끽할 수 있는 편안함을 만끽하면서 짧으면 1주일, 길면 한 달에 걸쳐 여행한다. 아프리카의 무더운 날씨에서 서구의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쾌적한 현대식 텐트에서 잠을 자며, 화장실 및 샤워 등 안락한 시설을 이용한다. 반면 현지 노동자들은 그들을 위해 운전하며,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야영지에서 텐트를 치며, 야생 동물을 밤새 감시하기까지 한다. 이를 두고 Mowforth and Munt(2016)는 식민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사파리 여행의 부활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신중간계급의 패락적 문화이자, 그 자체로 신식민주의라고 주장했다. 즉 과거의 주인과 노예, 혹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가 재생산되는 모습으로서, Ingold(2000)의 용어를 빌리자면 신식민주의 행위 경관(taskscape)인 셈이다.²²⁾

또한 트럭은 현지 노동자를 숨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진짜(real) 모습을 삭제한다. 트럭이라는 환경 보호막(environmental bubble)²³⁾은 아프리카의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경험을 방해한다. 즉, 아프리카의 소리, 냄새, 촉감, 맛을 느낄 수 없고, 더 나아가 태양, 바람, 비, 동물, 심지어 현지 주민까지 차단한다. 마치 영화관에서의 관람처럼 트럭 유리창 너머의 아프리카를 시각적으로만 경험할 뿐이다. 다시 말해, 여행자-트럭 모빌리티의 기동 관람 시각(motorized sightseeing vision)을 통한 일

견(glance)만 존재할 뿐,²⁴⁾ 아프리카의 진정한 모습은 경험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대중 관광객의 피상적 관람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문명의 '가려진 세계'를 트럭 내의 '서구적 시선'으로 경험할 뿐이다. 따라서 진짜(혹은 실재) 아프리카는 업계의 바램일 뿐, 여행자의 오만에 불과하다. 그들의 경험은 대중 관광객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아프리카의 도보 여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Mowforth and Munt(2016)는 탄자니아의 셀루스 동물보호구역(Selous Game Reserve)에서 행해진 워킹 사파리의 사례를 들면서 도보 여행의 신식민주의적 양상을 비판했다.

'6명의 여행자를 위해 35명이 현지 노동자들이 동원된다. 이들은 여행자의 요리, 빨래 등을 도맡아 하고, 매일 캠프를 설치하고, 거둔다. 아이스 음료, 넓은 수면 텐트, 화장실 및 샤워 시설 등 가정에서 만끽할 수 있는 대부분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현지 노동자가 여행자의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여행자의 낭만적인 감성을 위해 노동자들은 여행자의 행렬에 비해 뒤쳐지거나, 앞지르며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동한다. '생태 식민적 경관(eco-colonial landscape)'이 나타난다.'²⁵⁾

결국 방문객의 많고 적음, 전통적인 대량 패키지 관광 여부, 발길 드문 장소의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종속적인 관계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안 여행이 대중 관광의 단점이었던 지배, 예측, 종속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Mowforth and Munt, 2016). 물론 트럭 여행과 도보 여행의 사례가 대안적 여행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모든 대안 여행이 부정적 측면을 갖는다고 폄하할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사례는 모든 대안 여행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3) 경제적 측면

대중 관광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개발도상국의 관광 개발 사례를 통해 부단하게 제기되어 왔으며(Turner and Ash, 1975; Britton, 1982),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외지인에 의한 토지 소유, 지역주민 고용의 질적 문제, 종속적 경제 관계 등이 제시될 수 있지만(오정준, 2004a), 관광을 매개로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창출된 수익의 지역 외 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 문제의 특징은 관광으로 파생된 이익이 자본의 투자자, 항공사, 여행사 등의 외부로 유출되는 데 있는데, 이는 세계화로 인한 서구 자본주의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관광 개발을 도모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관광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투자를 결심한 글로벌 자본은 아름답고, 이국적인 경관을 지닌 장소를 대규모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고, 이미지 제작용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리조트 및 관광 자원을 홍보 및 판촉한다(Shaw and Williams, 1994). 이후, 이상적으로 포장된 장소는 관광객 시선을 형성하게 되고, 대량의 선진국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발전하게 된다. 당연하지만, 리조트에서 발생한 경제적 수익은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자본 투자 주체로 유출된다.

창출된 수익의 외부 유출은 리조트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리조트는 선진국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현대적 공간으로서, 업계에서는 '모두 포함된 리조트(all inclusive resort)'로 통용되고, 학계에서는 관광객 엔클레이브(tourist enclave)로 지칭된다.²⁶⁾ 이러한 공간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지만,

역으로 방문객과 방문 지역을 분리한다. 지역주민과의 접촉은 말할 것도 없고, 리조트 내부에서 파생된 경제적 이익까지 차단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방문객은 숙식과 대부분의 일정(활동)을 리조트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출은 리조트를 벗어나지 못하며, 파생된 모든 수익은 글로벌 관광기업의 이윤으로 전환된다. 방문객은 단지 비전문직 노동에 종사하는 소수의 지역주민과 리조트 내에서 마주할 뿐이고, 실제의 일상을 영위하는 현지 주민과는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요원할 뿐이다.

대안 여행자가 대중 관광객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중 관광객은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리조트와 같은 폐쇄적 공간에만 머무르길 원하고, 그 결과 리조트 밖의 진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지 주민과의 직접적인 생산-소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관광으로 파생된 모든 수익이 투자 자본의 주체에게 귀속되어 버린다는 점을 비판한다. 반면 대안 여행자 자신은 수익의 지역 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으로 가득 찬 현지의 실제 세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리조트, 호텔, 관광 단지의 매점보다는 현지 상점에서 현금을 쓰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Mowforth and Munt, 2016). 궁극적으로 대안 여행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나후된 지역의 개발 및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고려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안 여행자의 믿음과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대안 여행에서 파생되는 수익의 지역 외 유출이 대중 관광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여행자의 가장 큰 지출은 원거리를 방문하기 위한 항공료에 사용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지출은 소액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대안 여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의 양과 질은 미미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Mowforth and Munt, 2016). Mowforth and Munt (2016)는 '모두 포함된 리조트'의 대표 격인 클럽 메드(Club Med)와 트레킹(trekking)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대안 여행이 대중 관광에 비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대중 관광에 비해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표 5).

대안 여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대안 여행자의 특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대안 여

표 5. 대중 관광과 대안 여행 차이점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영향	대중 관광 (Club Med)	대안 여행 (트레킹)
여행 거리	1,000~2,000km	7,000~8,000km
여행 방식과 관련된 대기 오염 수준	높음	높음
방문 기간	1~2주	3~4주
영국 여행사에 지출한 여행 비용(파운드)	200~500	1,500~3,000
목적지에서 지출한 일일 비용	중간~높음	낮음~중간
지역주민과의 접촉	제한적	제한적
지역사회에 창출된 일자리 수	중간~높음	낮음
지역사회에 창출된 일자리 질	낮음	낮음
지역사회에서 생성된 2차 생산 및 서비스	중간	낮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관광에 관한 의존도)	아마도 높음 매우 의존적	제한적 매우 의존적
문화적 영향	제한적	아마도 높음
접촉 부위의 직접적인 생태학적 피해	높음	높음
주변 지역의 간접적 생태 피해 (삼림 벌채, 농업 실천 변화)	낮음, 중간, 높음	높음
탄소배출	중간	높음

출처 : Mowforth and Munt(2016)의 연구를 재구성함.

행의 전형인 배낭여행(backpacking)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휴대하고 현지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하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저렴하고 독립적 여행'으로 정의되는데(Cohen 2003, 한지은, 2019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안 여행자가 적은 여행 경비로 장기간에 걸쳐서 여행한다는 것으로, 배낭여행자의 방문으로 인해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대안 여행자는 대중 관광객과 공간적으로 차별화되고자 한다. 이는 방문자의 수가 적은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렴하고 여행자가 방문하기 좋은 장소가 보존될 수밖에 없는 압력을 지역에 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역은 대안 여행자의 방문을 위해 방문객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미미한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결과 지역주민은 대안적 여행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정도는 대중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발리의 가이드 Budi(28세)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 "당신은 관광객과 여행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여행자는 자신이 현지 주민들과 국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개 다른 여행자가 이전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일부 여행자는 친절하지만 90%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무례할 수 있습니다. 관광의 경우 모든 것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관광객은 지역을 많이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고, 그것이 저렴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내용을 다른 여행자에게 전달합니다. 나는 관광객을 선호합니다...(중략)...관광객은 특정 장소로만 이동합니다...(중략)... 그러나 여행자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준비된 장소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만 가고자 하고, 그곳을 망치고는, 심지어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Kuta로 가자! 거기서 형편없어!' 그런 다음 그들은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Wheat, 1994, Week, 2012에서 재인용).

앞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 여행 역시 대중 관광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안 여행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면죄부를 받고, 대중 관광은 그 자체로 비난받는

다. 이러한 인식을 내면화한 교과서는 대안 여행의 부정적 영향, 즉 단점을 간과한다. 현실의 여행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개념의 원형만 재현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대안 여행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봉사 여행을 비판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IV. 교과서에서 재현된 봉사 여행과 현실에서의 봉사 여행

봉사 여행에 관한 교과서 서술은 봉사 여행의 정의, 특징, 결과의 순으로 전개됨으로써, 2종의 교과서 모두 유사하게 전개된다. 먼저 봉사 여행을 자원봉사와 여행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다음으로 분쟁, 재난, 빈곤, 환경 등의 문제 발생지역을 찾아가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 여행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봉사 여행의 특징으로 인해 봉사 여행은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봉사 여행에 참여한 여행자는 배우고 성장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논리 전개는 앞서 언급한 대안 여행과 차이가 없다. 봉사 여행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여행자와 지역사회 모두 행복하다는 것이다(표 6).

그러나 이러한 논리 전개에 대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본다. 첫째는 ‘봉사 여행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인가?’에 관한 의문이고, 두 번째는 ‘봉사 여행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다. 이런 두 개의 질문을 통해 교과서에서 재현된 봉사 여행과 현실에서 실제 작동하는 봉사 여행을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1. ‘봉사 여행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인가?’

교과서에서는 봉사 여행이라는 용어를 자원봉사와 여행의 합성어로 제시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원봉사는 비영리적 행위이다. 노동에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다. 봉사 여행 또한 지역주민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기에 자원봉사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봉사 여행에는 영리적 측면이 존재한다(Mowforth and Munt, 2016). 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여행사와 봉사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돈을 내는 개인이 존재한다. 기관, 학교, 단체 등의 후원이 있는 봉사 여행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출의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 등으로 바뀌었을 뿐 금전적 거래는 계속된다.

이익을 취하는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봉사 여행자 역시 경제적 행위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행을 통해 추후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예상된다면, 혹은 봉사 여행이 경제적 수익을 위해 거래될 수 있는 상품, 즉 교환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면(Mowforth and Munt, 2016), 봉사 여행자의 순수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된다면, 봉사 여행은 엄연한 경제적 활동이자, 상업적 행위이다.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받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봉사 여행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Hutnyk, 1996). 자신의 고결한 여행은 상업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봉사 여행자는 상품의 구매자이자, 존경까지 받고 싶은 경제적

표 6. 봉사 여행에 관한 교과서 내용

A 교과서	B 교과서
• 봉사 여행이란 ‘자원봉사자(volunteer)’와 ‘여행(tourism)’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자원봉사를 겸하는 여행을 뜻한다. • 봉사 여행은...(중략)...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다. 봉사 여행은 봉사자와 지역주민 서로가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부족한 면을 채우는 사랑의 과정이다. • 봉사 여행은 봉사 여행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지인에게도 유익한 변화를 가져온다. 생활필수품, 의료 지원, 교육활동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작은 도움을 비롯하여...(중략)...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봉사 여행(Voluntourism)은 ‘자원봉사자(Volunteer)’와 ‘관광(Tourism)’이 합쳐진 말이다. 봉사 여행은...(중략)...자원봉사를 하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 봉사 여행자는 분쟁, 재난, 빈곤,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다. • 봉사 여행은 봉사 여행자의 변화뿐만 아니라...(중략)...지역주민에게도 유익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중략)...봉사 단체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중략)...현지 주민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행위자이다. 결국 봉사로 포장된 여행의 숨겨진 대가를 파악하고, 동시에 여행을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행위로서의 봉사 여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내놓기 위해 먼저 봉사 여행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봉사 여행이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서구에서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7세기~19세기 그랜드 투어가 봉사 여행의 근대적 기원이라면, 갭이어(gap year)는 봉사 여행의 현대적 동력이다. 갭이어는 개인이 학교 혹은 직장에서 벗어나 3개월~24개월 동안 휴식이 발생하는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 여행, 해외 근무, 국내 근무, 해외 자원봉사, 국내 자원봉사, 연구, 대학 입학(혹은 재입학) 등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이루어진다(Jones, 2004, 김나라·최지원, 2014에서 재인용; 강호원, 2015). 1960년대 영국에서 탄생한 갭이어는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많은 국가의 많은 참가자가 갭이어에 동참하기 때문이다.²⁷⁾ 특히 갭이어 기간 중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데, 그 중 일부는 봉사를 위해 집을 나선다. 갭이어 기간 중 봉사 여행을 실천하는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Mowforth and Munt(2016)는 다소 비약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갭퍼(gappers)와 봉사 관광객(voluntourists)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매년 250,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갭이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갭이어 산업까지 존재한다(Jones, 2004; 김나라·최지원, 2014에서 재인용). 특히 봉사 여행의 경우는 취업, 직업 교육 등 갭이어의 다른 활동에 비해 대행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²⁸⁾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어린 학생이 문제 발생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예를 들면 해외 지역 및 기관과의 연결, 부대 시설이 미약한 현지에서의 숙소와 음식 제공 등을 대신 처리해줄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등 갭이어의 역사가 긴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장이 발달했고, 많은 여행사가 봉사 여행을 위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건축, 영어 교육, 해변 청소, 야생 동물 인구 조사, 고아 돌봄까지 그 종류를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을 위해 여행사에 돈을 지출한다(Mowforth and Munt, 2016).

그러나 지출된 돈은 다시 경제적, 교육적 자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오지, 혹은 험지로의 윤리적 봉사 여

행은 추후 고용 및 진학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봉사 여행의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함으로써 대학 진학은 물론이고, 대학 졸업 후 고용주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강호원, 2015). 봉사 여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에서도 봉사 여행의 대가로 인증서를 발급 및 취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행사는 봉사 여행 후 각종 인증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하는데, 하루 일정에는 NGO 명의의 단체인증서를 발급하고, 3일이면 지자체의 인증서를 제공하는 식이다.²⁹⁾ 여행 일정이 길어질수록 인증서 발급 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당연하지만 비용도 추가된다. 또한 여행사는 해외경력 인증서와 수료증이 '취업 및 대학의 진로에 활용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³⁰⁾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행을 베푸는 활동일수록, 목적지의 위험이 커질수록 돌아오는 대가는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결국 개인의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수요는 높아지고, 이를 공급하는 규모가 확대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나라 역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산업으로서의 봉사 여행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봉사 여행으로 인해 중산층 학생과 그 이하 소득계층의 학생 사이에 격차가 커지는 현상에 관한 우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Hutnyk, 1996). 실제로 영국의 중등학교를 졸업한 18~19세의 학생 중 갭이어를 보내는 이는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80%는 영국 내에서 취업을 희망한다. 즉, 대다수 학생에 있어서는 갭이어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 경제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교육부의 '갭이어 선택자들: 활용, 경향, 그리고 장기적 결과' 보고서에서는 갭이어를 선택한 학생이 갭이어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갭이어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여행을 가는 학생은 부유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행을 가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을 가진다고 보고했다(강호원, 2015).

2. '봉사 여행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봉사 여행에 관한 더 큰 비판은 지역 문제의 해결 여부에 있다. 현지 주민이 원치 않는 건물을 짓고, 돌보지 않을

묘목을 심고,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유지 및 보수할 수 없는 성가신 물건(white elephants)을 남기고 떠나는 프로젝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 주민의 일자리까지 가로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Tourism Concern, 2007, Mowforth and Munt, 2016에서 재인용). 이는 산업으로서의 봉사 여행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특성이다. 즉, 선행을 베풀기 위해 돈을 내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여행자의 봉사 활동과 관련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에게는 보탬이 안되는 프로젝트가 점점 많아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의 대상이 아동과 관련되었을 때, 더욱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아원에서의 봉사 여행은 아마도 가장 고결한 선행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선진국의 봉사 여행자들이 개발도상국의 고아원에서 선행을 베풀고, 그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받는 점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디언(Guardian)은 네팔 봉사 여행과 인신매매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산업으로서의 봉사 여행에 우려감을 표명했다(Mowforth and Munt, 2016).

‘현지의 가난한 가족들은 외국인인 자녀를 교육하고 돌봐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도록 유혹받는다. 외국인 봉사 여행자는 많은 고아에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살아 있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특권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다. 여행업체는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린이를 의도적으로 고아로 만든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Guardian, 2014, Mowforth and Munt, 2016에서 재인용)

봉사 여행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긍정적 여행이지만, 산업으로 발전된 봉사 여행은 부정적 측면을 내포한다. 여행을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다수의 수요자와 이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간에 부정적 부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으로서의 봉사 여행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 갭이어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회의 현실이다. 갭이어와의 관련성이 없는 우리나라의 봉사 여행은 외국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봉사 여행 기간이다. 외국의 경우는 갭이어 기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봉사 여행의 기간이 1년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갭이어가 제도로 정착되지 않

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학 등의 기간을 활용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나타나고, 그 결과 여행의 기간이 길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행사가 제공하고 있는 봉사 여행 기간은 국내 봉사 여행의 경우는 최대 4주, 해외의 경우는 12주를 넘지 않는다.³¹⁾ 그런데 교과서에서 재현된 봉사 여행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봉사 여행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A 교과서에서는 봉사 여행을 ‘여행자와 지역의 부족한 면을 서로 채워주는 사랑의 과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의 과정’은 단기간에 충족될 수 없다. 즉, 현지 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1개월~3개월 남짓한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지 주민과의 일체화는 불가능하고(이경환, 2018), 지역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으며, 피상적인 체험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을 ‘딸기 농장’으로 비유하자면, 1개월~3개월의 시간은 농장에서의 ‘딸기 채취’일 뿐, 딸기의 파종, 재배, 수확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딸기 농사’ 기간은 아니다. 현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의 봉사 여행처럼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재현된 봉사 여행은 우리의 봉사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산업으로서의 외국의 상황도 기술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봉사 여행이 아니라, 해외 자원봉사에 관한 서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원봉사는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비영리적 행위다. 또한 기관, 단체, 학교 등의 후원이 따르기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³²⁾ 그러나 후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참석 가능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참여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 지리 교과서는 현실의 봉사 여행을 설명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참가하기 힘든 자원봉사에 관한 서술로 채워져 있다. 봉사 여행의 영리적, 산업적,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고, 자원봉사를 차용하여 봉사 여행을 이상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교과서에서 봉사 여행을 이상적으로 포장하는 사례는 봉사 여행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봉사 여행의 영어적 표현은 ‘voluntorism’으로서(표 6), 직역하면 ‘봉사 관광’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봉사 관광’이라는 한글 표현은 볼 수 없고, 오직 ‘봉사 여행’으로만 해석되어 있다. 아마도 교과서에서는 여행자와 지역의 부족한 면을 서로 채워주는 ‘사랑의 과정’에 ‘관광’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고결한 봉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관광은 적당한 용어가 아닌 것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봉사 여행은 윤리적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의 요소를 내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이경한, 2018). 실제로 봉사 여행을 다녀온 학생의 긍정적 사례 또한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되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봉사 여행을 다녀온 모든 학생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우지연, 2024). 이는 봉사 여행 자체가 곧 학생의 행동 변화를 모두 설명해줄 수 없다는 것이며,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는 학생이 이미 집을 나서기 전에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 행동으로서, 몸에 체화된 일상의 실천을 방문지에서 전의식적이고, 비성찰적으로 반복한다는 논의와 공명한다(오정준, 2021). 이 내용은 후속하는 장에서 다루어보기로 한다.

V. 제언: 여행 지리 과목에서의 '여행의 의미'

본 연구는 대안 여행의 개념적 정의와 현상과의 불일치를 가정하면서, 교과서에서 재현된 대안 여행과 현실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안 여행을 비교 및 분석했다. 연구 결과, 2종의 교과서에 서술된 대안 여행은 대중 관광의 대척점이자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초기 대안 여행의 원형적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대안 여행은 양적 팽창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원형적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중 관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대안 여행을 '좋은' 여행으로 상정하고, 대중 관광을 '나쁜' 여행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인식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대안 여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여행 지리 과목의 '여행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제언을 통해 글을 마무리해보기로 한다.

1. 첫 번째 제언: 인식의 전환을 통한 이분법의 기각

Feifer(1985)가 제시한 탈관광객(post-tourist)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실재와 재현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자신만

의 놀이성(playfulness)을 통해 즐거움을 인식하는 관광객을 지칭한다. 탈관광객은 여행을 가짜의 게임이라고 사유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가짜로 점철된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혹은 인위적으로 고안된 가짜 상품을 소비하더라도,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다양한 선택 및 행동을 통해 자신만의 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여행을 의식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여행을 칭송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모방하거나, 배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실재와 유사 사건,³³⁾ 진정성과 무대화된 진정성,³⁴⁾ 발길 닿지 않는 장소와 익숙한 장소의 구분은 그들에게 무의미하다.

탈관광객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 상품, 사람이 각각 내포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의 활용성이다(Stors *et al.*, 2019). 예를 들어 홀라춤 공연이 고유한 전통적 모습이 아닌, 즉 관광객을 위해 각색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한 채, 무희와 함께 춤추고 어울리면서 하와이의 판타지를 구현한다. 또한 라스베이거스가 초현실적 세계라는 점을 이미 알면서도, 가짜 에펠탑에서의 셀카(selfie)를 통해 낭만적 파리를 소환한다. 따라서 탈관광객은 사람, 장소, 상품의 진위보다는 자신만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장소, 상품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각각이 가지는 기호 가치보다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행위자의 사용 가치에 무게를 둔다.

방문 장소를 지위재로 간주하는 여행자는 기호 가치의 추구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겠지만, 탈관광객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호 가치는 여행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사람, 장소, 상품이 가지는 기호 가치를 통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여행의 출발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탈관광객은 자신만의 여행의 세계를 만끽하고, 그 세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인식적이며, 현실적인 관광객이다(Stors *et al.*, 2019).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행의 세계는 탈관광객의 인식과 다르다. 폄하와 비난으로 가득 찬 편견의 세계이다. 대량과 패키지, 관광버스와 유람선, 관광과 관광객은 그 이름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많은 이들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혹은 집단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관찰 및 논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한다. 그들은 사회학자의 연구 방법론을 내면화하여 해변, 공항, 광장,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관광객들을 관찰한다. 그리고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이

웃고 떠드는 무리의 모습을 논평한다(Löfgren, 1999). 그러나 편견의 시선을 보내는 행위자는 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자신 또한 편견의 세계에 동참한다. 이는 여행과 관광(혹은 여행자과 관광객)에 관한 용어 선택 및 활용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행과 관광은 엄밀한 구분 없이 교차적으로 사용되며(이응규, 2016),³⁵⁾ 많은 문헌에서 이를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광학, 지리학 등의 학술 문헌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진술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³⁶⁾ 여행과 관광은 개념적으로만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을 뿐,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용어의 선택이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 부정적 측면의 상황에서는 관광이 선택되고, 긍정적 측면의 진술에서는 어김없이 여행이 등장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아’와 ‘타자’를 나타낼 때의 방식이다.

자신의 일정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관광보다 여행이라는 용어가 선택된다. ‘나는 지난 여름휴가에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어도 ‘나는 관광을 다녀왔다’라는 표현은 보기 힘들다. 설령 외국에서 무리를 이루어 돌아다니고, 천연색 아웃도어 의상을 함께 입고,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면서 거리를 활보했다라도 ‘나’와 ‘우리’의 여정은 여행으로 포장된다. 그러면서도 서울의 고궁, 거리, 호텔, 면세점에 방문한 중국인을 지칭할 때는 관광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같은 언어로 말하고, 같은 색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거리를 활보하는 ‘타자’를 우리는 여행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남의 여행 방식은 다르지 않지만,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는 확연하게 다르다.

다른 사람의 여정은 관광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일정은 여행으로 포장하는 인식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집을 나서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행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역할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방문한 여행가일지라도 때론 일가친척의 해외여행을 계획 및 진행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짜로 점철된 테마파크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순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원주민 마을에 홀로 머물면서 장기간의 지리 답사를 수행했다라도, 이후에는 버스를 활용해 무리를 이루면서 다수의 학생과 이 장소를 단기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여행은 찬미의 숭배로 추앙되고, 어떤 여행은 폄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집을 나서고 있고, 각자의 여행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이다’라는 인식은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행이 전 세계적 메가 이벤트가 된 작금의 상황에서 여행의 세계는 점점 더 영리해지고 있다. 패키지 관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행사에서 항공편과 숙박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공항에서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무리를 지어 비행기에 오르지만, 목적지를 방문하는 순간 개인으로 분해된다.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면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여행을 대안 여행이나 대중 관광이라는 용어를 통해 단정할 수 없다. 각각의 경계가 일순간 허물어진 관광-여행 하이브리드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관광객이다.

그러나 여행 문헌과 교과서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이는 전적으로 과거의 전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프레임을 완전히 기각할 필요는 없다. 즉, 기호 가치로서의 ‘대중’과 ‘대안’이라는 용어를 출발선으로 간주하고, 각각이 결승점에도 달하는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자 모두 지속 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대중’과 ‘대안’은 출발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각각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2. 두 번째 제안: 학생이 생각하는 여행 지리의 의미

여행 지리가 지리 교육과정에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행이 갖는 흥미로움이다. 오래전부터 지리 교사들은 ‘여행’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지리 내용을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는데,³⁷⁾ 그 이유는 낯선 장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지리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지리적 호기심(혹은 지리적 상상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딱딱한 지리 내용에 여행이라는 요소를 결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고려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행은 학생이 현재 실천하는 일상 경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활용 및 연계한 지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이라는 요소가 갖는 흥미 및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여행 지리 과목 태동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행 지리 교과서를 펴는 순간 학생들의 기대와 관심은 곧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와 여행 지리 과목이 내포하는 '여행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미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직·간접적 여행은 즐거움과 지리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연 및 문화경관 관람, 음식 체험, 쇼핑, 사진찍기 등은 현재 많은 매체에서 경쟁적으로 제작되는 여행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학생들은 이러한 간접적 여행을 내면화하여 자신들의 다가올 여행에서 이러한 방식을 추구할 것이며, 교과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 지리에서의 '여행의 의미'는 윤리적, 도덕적, 교육적 성향의 대안 여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학생의 일상 경험과 관련된 지리적 호기심과 즐거움의 요소는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다. 일상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은 교과서 내용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교사의 여행 경험 역시 교과서의 여행과 같지 않다는 데 있다(박동한, 2020). 논의를 확대하면, 우리 모두 일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여행과 여행 지리 교과서가 표방하는 '여행의 의미'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2023년 국민여행조사의 항목별 가장 높은 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여행 방식의 전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는 '계획을 직접 작성하여, 주말에 당일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주변 지역을 방문하여 자연 및 경관을 감상하고, 음식을 먹는 여행'이고,³⁸⁾ 해외의 경우는 '여행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휴가 기간에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아시아의 주변 국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호텔에서 숙박하며, 자연 및 경관을 감상하고 음식을 먹는 여행'이다.³⁹⁾ 국민여행조사는 학생과 교사의 보편적 여행 방식은 물론이고 우리가 현재 실천하는 여행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 시점에서 여행 지리가 내포하는 '여행의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여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행이 아니라, 개념적 서술에서만 나타나는 이상적 여행을 표방한다. 만약 그렇다면, 여행 지리가 서구 사회의 여행 전통을 내면화하여 학생들에게 여행의 계몽적, 교육적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즉, 과거 여행자의 행적만 추종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적 여행만 강조함으로써 관광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여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

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행과 거리감이 존재하고, 그 차이가 점점 확대된다면, 학생들의 흥미가 반감될 것이다. 이는 여행 지리의 선택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3. 세 번째 제언: 여행 지리가 표방하는 새로운 '여행의 의미'

여행을 둘러싼 편견은 지리 교육계 내·외부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외부의 편견은 '학교에서 여행까지 가르쳐야 하는가?'와 같은 교육적 편견⁴⁰⁾과 '즐거움과 관련된 내용이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등의 학문적 편견⁴¹⁾으로 대표된다. 지리 교육계는 이러한 외부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 지리가 표방하는 '여행의 의미'를 대안 여행을 한정했고, 형식적 지식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했다.⁴²⁾ 비록 이러한 노력이 여행 지리가 표방하는 '여행의 의미'를 대안 여행으로 한정 짓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외부의 편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물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안 여행의 강조는 여행과 관광을 둘러싼 또 다른 편견을 가져왔다. '여행의 의미'에 관광을 배제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여행의 방식을 부정하게 되었고, 학생의 일상 경험과 배치된 여행에 중점을 두었다. 즉, 여행과 관광을 구분 짓는 '편견 내의 편견'을 조장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외부의 편견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Franklin and Crang(2001)은 여행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여 여행(혹은 관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여기에서의 과거의 방식이란 자칫 경박해 보일 수 있는 여행(혹은 관광)이라는 주제를 합법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채택한 여행(혹은 관광)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에 관한 강조를 의미한다.

그것보다는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여행(혹은 관광)의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Franklin and Crang, 2001). 이는 여행과 관광을 기호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로 인식하는 탈관광객 개념과 일치하며, 휴가(holiday)를 계급의 문화적 장신구가 아닌 문화적 실험실로 사유하자는 Löfgren(1999)의 논의와 공명한다.

Löfgren(1999)의 논의를 빌리자면, 휴가는 저마다의 문화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이자, 자신만의 판타지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실천이 되는 활동무대이다.

탈관광객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여행(혹은 관광)은 각자의 놀이성을 통해 즐거움을 인식하는 행위이며(Feifer, 1985), Franklin and Crang(2001)에 의하면 저마다의 기술, 기질, 성향을 통해 세상을 감지하는 방법이다(Franklin and Crang, 2001).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여행, 관광, 휴가를 막론하고 즐거움을 위해 집을 떠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이에게 보편적일 수 없고, 미리 정해질 수 없는 방식임을 의미한다. 즉, 자신만의 배역, 대본, 연출을 통해 꿈을 이루는 활동이자, 각자의 신체에 표현되는 놀이적 실천을 통해 고정된 장소에 새로운 활력(혹은 정체성)을 불어넣는 지리적 실천인 셈이다(오정준, 2015a; 오정준, 2015b).

또한 수행 관점은 여행(혹은 관광)을 일상적 루틴이 전적으로 유예되는 한계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일상의 연장선상으로 사유한다(오정준, 2021). 즉, 한시적 기간에 색다른 공간에서 행해지는 예외적인 실천이 아닌, 일상의 습관, 사물,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방문지로 가져가는 일상적 실천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이미 문화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정례적, 비성찰적, 반복적 루틴을 방문지에서 실천하는 행위로서(Edensor, 2001),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바로 그 자체인 셈이다(Franklin and Crang, 2001). 이러한 견지에서 여행을 더 이상 가법고, 사소하고, 예외적이며, 비표준적인 현상으로 사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즐거움과 관련된 내용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교에서의 형식적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외부의 편견은 살아 움직이는 여행의 세계를 미리 결정된 프레임 속에 가둬 놓으며, 집을 떠나는 모든 이들의 창조성을 간과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우리는 상호 연결 및 상호 의존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관계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이재열, 2016). 지역을 내부와 외부 간의 뚜렷한 경계가 있는 곳으로 이해할 수 없듯이(이재열·박경환, 2018), 이분법적 관계 및 존재론에 얽매어서 현상을 사유하는 것은 최근의 인문지리학 흐름과 배치된다(김숙진, 2010; 박경환, 2013; 박경환, 2014; 김숙진, 2016). 주체와 객체, 사회와 기술, 현실과 가상 등이 공진화를 통해 탈영토화되고 있고(이희상, 2016), 각각의 영역은 경계를 허물면서 상호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을 과거의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은 현실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대 범주를 활용한 전통으로 바라볼 수 없고, 좋음과 나쁨의 근대적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다. 즐거움을 위해 집을 떠나는 모든 행위는 상호 관계적 인과성 속에서 여행-관광 하이브리드의 양상으로 실천되기 때문이다.

여행 지리 교과서는 '여행의 의미'를 대안 여행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2015 교육과정에서 외부의 편견에 대응할 수 있었고, 2022 교육과정에서 과목 존속이라는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부산물 또한 발생했다. '여행의 의미'를 대안 여행으로 한정함으로써, 교과서 내에서 대안 여행은 이상적으로 재현되었고 현실에서의 측면을 부분적으로 간과하였다. 더 나아가 대중 관광은 여전히 좋지 않은 유형으로 고려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여행 방식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관광과 여행, 더 나아가 대중 관광과 대안 여행에 관한 의문점을 유발했다.

어떤 여행은 좋고, 어떤 여행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구분은 여행의 본연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 여행은 각자의 방식으로 집을 떠나는 행위로서, 그 어떤 여행도 칭송받을 수 없고, 비난 역시 받을 수 없다. 또한 여행은 즐거움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바로 그 자체이다. 따라서 '여행의 의미'는 유연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대안 여행이 대중 관광에 비해 의미가 있다는 인식은 기각됨이 마땅하며, 우리가 현재 실천하는 여행 양상을 토대로 하여 대안 여행의 변화된 양상은 물론이고 대중 관광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행 지리, 더 나아가 지리교육이 표방하는 새로운 '여행의 의미'가 될 수 있다.

註

- 1) 강창숙(2016), 이동민(2016), 이경한(2018), 김지수(2020), 김기남(2021), 손민석·이진희(2022), 강창숙·이영재(2023), 범영우(2023)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 2) 여행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은 여행과 관광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박경환(2018)과 한지은(2019)의 연구는 이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여행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3) 심승희·김현주(2016)의 연구에 수록된 현장 교사

들의 논쟁(질문)을 발췌한 것임.

- 4) 연구진은 여행, 관광, 답사의 사전적·학술적 의미에 구속받지 말고, 맥락에 따라 관광과 여행을 여행 지리 과목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여행 지리가 여행 과목이 아니라 지리 과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명료하지 않은 여행(혹은 관광) 개념에 관한 답을 내놓기보다 과목의 목표 및 성격에 상응하도록 '여행의 의미'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육과정 작업을 마쳐야만 했기에 교사들이 제기한 질문(혹은 쟁점)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구진은 고심 끝에 '여행의 의미'를 대안 여행으로 선정했고, 이러한 선정이 잠정적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이 선택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연구를 축적해가면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 때 발전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승희·김현주(2016)을 참고할 것.
- 5) 심승희·김현주(2016)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6) 비록 '대안' 및 '대중'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이 지칭하는 것은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임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다.
- 7) Krippendorf(1982)는 '경성관광'과 '연성관광', Poon(1993)은 '구관광'과 '신관광'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비교했지만, 이는 사실상 대중 관광과 대안 여행을 지칭하고 있다. 관광의 예전 양상(old)과 새로운 양상(new)을 구분하여 제시한 Mowforth and Munt(1998)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8)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탈분화'는 각 부문 간 경계의 소멸을 상징한다. 따라서 탈근대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해체' 및 '경계의 소멸'을 주장하지 않고, 부문 간 경계를 전제하는 것은 탈근대적 관점에서 근대적 방법론을 활용한 '역설'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분화' 및 '경계의 소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Lash and Urry(1994), 오정준(2004b)를 참고할 것.
- 9) Krippendorf(1982)는 대중 관광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다고보다는 대중 관광을 하나의 발전과정으로 고려했고, 대안 여행을 대중 관광의 파생 형태라고 간주했다(Clarke, 1997). 그러나 후속 학자들의 고정된 해석을 통해 대중 관광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소 왜곡되었다.
- 10) Mowforth and Munt(1998)는 대안 여행이 본질적으로 좋고 대중 관광은 명백히 나쁘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같은 책(Tourism and Sustainability)의 4판에서는 앞서 언급한 초판의 관점을 스스로 뒤집는다. 즉, 대안 여행 역시 대중 관광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기에 대안 여행과 대중 관광을 '좋고', '나쁨'의 구도로 비교하여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Mowforth and Munt, 2016).
- 11) 한국의 관광학계에서 가장 대표적 학회는 한국관광학회이다. 이 학회가 편찬한 '관광학 총론'에 제시된 여행의 정의는 관광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여행에 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 12) 관광학 내부는 물론이고 관광학 외부에서 제기된 관광 연구 비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 구축 기여에 실패한 현장 연구의 확산'(Cohen, 1995, Franklin and Crang, 2001에서 재인용), '부차적, 주변적, 시론적, 비학문적, 진지하지 못한, 변두리 학문'(김사현, 2008), '이론 없는 사례 연구, 학술적 연구가 아닌 특정 분야에 대한 논의, 실무 사례, 일회성 사례연구'(Hall and Lew, 2004, 윤혜진 외 2013에서 재인용; Xiao and Smith, 2006; Tribe, 2010), '과학화 이전, 패러다임 이전의 단계'(Echtner and Jamal, 1997, 변우희 등, 2008에서 재인용), '새롭지 않고, 진부하며, 반복적이며, 생기 없는 연구'(Franklin and Crang, 2001).
- 13) 물론 대안 여행을 재정의하는 사회과학 연구 및 지리학 연구도 존재하지만, 이는 소수에 한정되어 있기에 대량의 관광 연구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다.
- 14) 여기에서의 시선은 Urry(1990)의 관광객 시선(tourist gaze) 개념을 의미한다.
- 15) 소규모의 독립적 여행사는 자신들의 상품을 맞춤형(bespoke), 유연한(flexible), 개인화된(individuated, personalised), 전문적(specialised) 등의 차별화된 언어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고결하고, 윤리적인 여행자로 규정한다(Mowforth and Munt, 2016).
- 16) off-the-beaten-track은 the-beaten-track의 반대말로서 '경로를 벗어난 장소', '발길 드문

- 장소', '발길 닿지 않은 장소'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 혹은 비대중적인 여행 장소를 지칭한다. 대안 여행에서는 오지와 험지가 이에 해당하며, 도시 관광 연구에서는 호텔, 박물관, 유명 관광 명소 등이 입지한 도심과 지역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근린을 각각 the-beaten-track과 off-the-beaten-track으로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모험 관광지와 고급 관광지를 off-the-beaten-track에 포함하기도 한다(Matoga and Pawlowska, 2018).
- 17) B 교과서의 153쪽에는 '쓰레기로 가득 찬 발리의 쿠타 해변'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고, 대량의 여행자로 인해 오염된 해변을 설명하는 글이 있다.
 - 18) 제주도의 아부오름은 소수의 개별 여행자가 방문하는 대안적 여행지이다. 그러나 기본적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답압(trampling) 등의 환경적 손상이 오름 지표면에 나타났다. 반면 아부오름 근처의 대중 관광지인 산굼부리는 방문객을 위한 기본적 시설이 구축된 관계로 대량의 관광객이 방문하더라도 아부오름과 같은 환경적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정준(2004a)을 참고할 것.
 - 19) '세상을 바꾸는 여행'은 여행 지리 교과서 4장의 대단원 제목이기도 하다.
 - 20) 3S는 대중 관광 목적지의 균질성에 관한 은유로서, 많은 문헌에서 널리 인용되는 표현이다. 일각에서는 대중 관광을 4S(sun, sand, sea, sex)로 은유한다.
 - 21) Boorstin(1964)은 진정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두고 '유사 사건(pseudo event)'으로 명명했다. 미주 33 참고.
 - 22) 행위 경관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거주하고, 이동함으로써 자신들을 평범함으로(혹은 루틴으로) 공간에 새기는 방식이다. 경관이 관련된 특징들의 배열이라면, 행위 경관은 관련된 행동들의 배열이다(Ingold, 2000, Larsen, 2008에서 재인용).
 - 23) Boorstin(1964)의 용어임. 미주 26 참고.
 - 24) 여행자-트럭 모빌리티와 같은 인간-기계의 공동 관람 시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정준(2019)을 참고할 것.
 - 25) Mowforth and Munt(2016)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26) 관광객 엔클레이브는 지역의 환경과 동떨어진 채, 관광객 편의 위주로 조성된 공간이다. 관광 단지 와 대형 리조트 등이 대표적 예이다. 관광객 엔클레이브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Turner는 '황금 게토(golden ghettos)'를, Boorstin은 '환경 보호막(environmental bubble)'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Boorstin, 1964; Turner, 1975).
 - 27) 갭이어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미국, 아일랜드, 일본 등에서도 보편화되었다. 또한 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인과 은퇴자들이 갭이어에 합류하고 있다(Mowforth and Munt, 2016).
 - 28) 물론 여행이 아닌 다른 갭이어 활동 역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하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Jones은 이를 구조적 활동(structured activity)이라고 명명했다(Jones, 2004, 김정희 외 2017에서 재인용).
 - 29) 인증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 여행사 홈페이지(<http://onnurimytour.com/>)를 참고할 것.
 - 30) 이러한 홍보 문구를 대다수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 갭이어 홈페이지(<https://koreagapyear.com/>)를 참고할 것.
 - 31) 봉사 여행 기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갭이어 홈페이지(<https://koreagapyear.com/>)를 참고할 것.
 - 32) 자원봉사의 경우 후원이 있더라도, 일부분의 경비는 개인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33) Boorstin(1964)은 1960년대의 미국인들이 실재를 직접 경험할 수 없으며 대신 진정하지 않은 인위적 매력물인 유사 사건(pseudo-event)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건의 대표적 예는 디즈니랜드이다(Boorstin, 1964).
 - 34) MacCannell(1973)은 Erving Goffman의 연극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관광 공간의 전면과 후면 영역을 구분했다. 후면은 실제의 모습이지만, 전면은 진짜처럼 보이도록 구성된 인위적인 관광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지칭하는 개념이 무대화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이다.
 - 35) 이용규(2016) 관광과 여행이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즉 이분법적

- 관점을 내면화하여 양자의 명확한 구분을 주장했다.
- 36) 예를 들어 2015 여행 지리 교육과정의 [12여지 02-04]에서는 '생태 여행'으로, [12여지05-02]에서는 '생태 관광'으로 표현되어 있다.
- 37) 지리교육 현장에 여행을 도입하자는 초장기 논의의 대표적 예로는 이희용(2002)의 연구가 있다.
- 38)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서 항목별 가장 높은 응답을 종합한 것으로서, 항목별 통계값은 다음과 같다. 주말(65.2%), 당일 일정(58.3%), 가족 동반(59.9%), 자연 및 경관 감상(78.3), 음식(60.2%), 자가용 이용(85.8%), 여행사 대행 비율(2.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계값은 관광정보지식시스템의 홈페이지(<https://know.tour.go.kr/>)를 참고할 것.
- 39)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서 항목별 가장 높은 응답을 종합한 것으로서, 항목별 통계 값은 다음과 같다. 가족(47.4%)과 지인(48.3%), 자연 및 경관 감상(81.6%), 음식(74.3%) 대형 버스(53.1%) 호텔(86.8%), 여행사 대행 비율(64.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계값은 관광정보지식시스템의 홈페이지(<https://know.tour.go.kr/>)를 참고할 것.
- 40) 2015 교육과정 고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부는 '여행 지리는 국가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의미가 없다.', '사회과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심승희, 2020).
- 41) 영미의 사회과학은 이동, 소비, 여가보다는 구조, 생산, 노동을 중시함으로써(Lash and Urry, 1994), 즐거움과 관련된 내용이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간주했다. 이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인식이자, 전통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42)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지리 교육계의 주장은 2015 여행 지리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교육부, 2015).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 지리 과목은 대안 여행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지역, 국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방법의 탐색 및 함양을 위해 (대안) 여행이라는 주제와 형식을 선택했다.'

참고문헌

- 강창숙, 2016, "한국의 여행 지리와 중국의 관광 지리 교육과정 비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267-285.
- 강창숙·이영재, 2023, "고등학교 「여행 지리」 과목 교사 교육과정 실천과 학습자 인식 특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107-124.
- 강호원, 2015, "영국의 갭이어,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270호, 27-33.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김기남, 2021, "여행 지리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질문과 도전," 한국사지리지리학회지, 31(1), 90-107.
- 김나라·최지원, 2014,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아일랜드·덴마크·스웨덴·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199-223.
- 김숙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5(4), 461-477.
- 김숙진, 201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3), 311-326.
- 김정희·주동범·정일환·정진철·권동택·최창범·이현민, 2017, "영·미·일 대학 갭이어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비교교육연구, 27(4), 155-186.
- 김지수, 2020, "고등학교 여행 지리 과목의 학교 교육 현황: 교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4), 17-35.
- 박경환, 2013, "글로벌 시대 창조 담론의 제도화 과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31-48.
-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57-78.
- 박경환, 2018, "포스트 식민 여행기 읽기-권력, 욕망 그리고 재현의 공간-" 문화역사지리, 30(2), 1-27.
- 박동한, 2020, "지리교육의 새로운 기회, '여행 지리' 체험기," 아우라지 72호, 51-65.
- 박종관·홍현철·양향자·윤지현·김기남·김지호·신혜은, 2018, 「고등학교 여행 지리」, 서울: 천재 교과서.
- 범영우, 2023, "비재현 이론에 근거한 여행 지리의 경관 분석과 수업 실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변우희·조광익·김기태·한상현, 2008, "관광학 연구 동향

- 및 교육과정 분석과 ‘관광학 총론’의 구성 체계,” 관광학연구, 32(4), 35-53.
- 설혜심, 2013, 「그랜드 투어」,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손민석·이진희, 2022, “학교 여행 지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 김해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1(1), 29-47.
- 심승희, 2020, “고교 진로 선택과목 ‘여행 지리’는 어떤 과목인가?,” 아우라지 72호, 12-29.
- 심승희·김현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진로선택과목 여행 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87-98.
- 오정준, 2004a, 「지속 가능한 관광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 오정준, 2004b,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제주 관광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9(3), 391-408.
- 오정준, 2015a, “재현과 수행으로서의 관광객 사진-러버덕 프로젝트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0(2), 217-237.
- 오정준, 2015b, “‘재현의 재현’을 넘어선 관광객 사진-영화 건축학 개론의 ‘서연의 집’에서의 사진 수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7(3), 131-145.
- 오정준, 2019, “관광객-모빌리티 기계의 기동 관람 시각: 서울 시티투어버스의 파노라마 코스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3), 83-96.
- 오정준, 2021, “관광과 일상의 결합에 관한 소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1), 14-28.
- 오정준, 2023, “관광객-여행자 이분법 넘기,” 한국지리학회지, 12(1), 181-197.
- 우지연, 2024, 「내게 말을 거는 여행의 장소」, 서울: 행복우물.
- 윤혜진·김철원, 2013, “관광 현상에 대한 이론 개발고찰,” 관광학 연구, 37(10), 11-32.
- 이경한, 2018,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3(2), 39-75.
- 이동민, 2016,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분석,” 한국지리학회지, 5(1), 1-11.
- 이응규, 2016,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여행의 본질 연구,” 관광연구저널, 30(6), 99-117.
- 이재열, 2016,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담론의 진화: 기업 및 산업 중심 거버넌스 분석을 넘어서,” 대한지리학회지, 51(5), 667-690.
- 이재열·박경환, 2018,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에 관한 소고: 사업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1), 85-96.
- 이재열·홍동표·오준혁, 2022, “포스트식민주의 오리지네이션: 스팸 브랜드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1), 1-20.
- 이희상, 2016, 「존 어리, 모빌리티」, 서울: 커뮤니케이션이론총서.
- 이희용, 2002,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제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7-7-85.
- 조광익, 2006, 「현대 관광과 문화 이론-푸코의 권력이론과 부르디외의 문화적 갈등이론」, 서울: 일신사.
- 조성호·이강준·홍철희·박성계·백승진·신준, 2022, 「고등학교 여행 지리」, 서울: 씨마스.
- 한국관광학회, 2009, 「55인의 관광학 전문인이 집필한 관광학 총론」, 서울: 백산출판사.
- 한지은, 2019, “익숙한 관광과 낯선 여행의 길잡이-서구의 여행안내서와 여행(관광)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1(2), 43-59.
- Azariah, D., 2016, The traveler as author: examining self-presentation and discourse in the (self) published travel blog, *Media, Culture & Society*, 38(6), 934-945.
- Boorstin, D., 1964, *The Image*, Harper & Row(정태철 역, 2004, 「이미지와 환상」, 서울: 사계절).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최종철 역, 1995, 「구별 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 Britton, S.,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tourism in the Third World, *Annals of Tourism Research*, 9, 331-358.
- Clarke, J., 1997, A framework of approaches to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5(3), 224-233.
- Eadington, W. and Smith, V., 1994,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forms of tourism, in Smith, V. and Eadington, W., eds., *Tourism Alternatives*, John Wiley and Sons, 1-12.
- Edensor, T., 2001, Performing tourism, staging tourism: (re)producing tourist space and practice, *Tourist Studies*, 1(1), 59-81.
- Feifer, M., 1985, *Going Places*, London: Macmillan.

- Franklin, A. and Crang, M., 2001, The trouble with tourism and travel theory?, *Tourist Studies*, 1(1), 5-22.
- Hutnyk, J. (1996) *The Rumour of Calcutta: Tourism, Charity and the Poverty of Representation*, London: Zed Books.
- Krippendorff, J., 1982, Towards new tourism policies, *Tourism Management*, September, 135-148.
- Larsen, J., 2008, De-exoticizing tourist travel: everyday life and sociality on the move, *Leisure Studies* 27(1), 21-34.
- Lash, S. and Urry, J., 1994,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박형준·권기돈 역, 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서울: 현대미학사).
- Löfgren, O., 1999, *On Holida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589-603.
- Matoga, Ł. and Pawłowska, A., 2018, Off-the-beaten-track tourism: a new trend in the tourism development in historical European cities: A case study of the city of Krakow, Poland, *Current Issues in Tourism*, 21(14), 1644-1669.
- Mowforth, M. and Munt, I., 1998, *Tourism and Sustainability: New Tourism in the Third World*, London: Routledge.
- Mowforth, M. and Munt, I., 2016, *Tourism and Sustainability: Development, globalisation and new tourism in the Third World*(Fourth edition), London: Routledge.
- Munt, I., 1994, The other postmodern tourism: Travel, culture and the new middle clas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1(3), 101-124.
- Poon, A., 1993, *Tourism, Technology and Competitive Strategies*, New York: CAB International.
- Shaw, G. and Williams, A., 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London: Blackwell(이영희·김양자 역, 2008, 「관광 지리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Stors, N., Stoltenberg, L., Sommer, C., and Frisch, T., 2019, An Introduction, in Frisch, T., Sommer, C., Stoltenberg, L. and Stors, N., eds., *Tourism and Everyday Life in the Contemporary city*, Routledge, 1-23.
- Turner, L. and J. Ash, 1975, *The Golden Hordes*, London: Constable.
- Urry, J., 1990, *Tourism Gaze*, London: Sage.
- Vainikka, V., 2013, Rethinking mass tourism, *Tourist Studies*, 14(3), 261-285.
- Week, L., 2012, I am not a tourist: Aims and implications of traveling, *Tourist Studies*, 12(2), 186-203.
- 온누리 여행사, <http://onnurimytour.com/>
- 한국 갭이어, <https://koreagapyear.com/>
- Red Africa, <https://redafrica.co.kr/>
- 교신 : 오정준,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jeongjoony@naver.com)
- Correspondence: Jeongjoon Oh, 38453, 201, Daegu-daero, Gyeongsangsi, Gyeongsangbuk-d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Email: jeongjoony@naver.com)
- 투고접수일: 2024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 2024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6일